동백은 통꽃으로 지고 기러기떼 하늘길을 아네

정월 보름날 호남 들판

붉은 색과 풀색이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
•
•

지조를 버리지 않고
정의의 길이라면
험난해도 기어이 가는
열사를 닮았어라



1894년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은 낡고 썩은 봉건왕조를 갈아엎고 민중의 새 세상을 세우려 했던 혁명이었습니다. 한반도 제일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땅. 악질 탐관오리 조병갑이 이곳 전라도 고부군의 군수로 오면서 가뜩 등이 휠대로 휜 살림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은 마침내 1월 10일 밤, 고부관아로 쳐들어가면서 갑오농민전쟁은 시작됩니다.

불행하게도 녹두장군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의 꿈은 외세를 불러들인 비겁한 왕조로 무산되었죠. 나약하고 비겁한 왕조가 역사의 발전을 거부하고 낡은 체제를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농민군의 염원은 뒷날 조국독립과 해방을 일구려는 민중의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져 마침내 봉건체제와 식민체제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조국을 되찾습니다.

봉기가 일어난 지 옹근 백년이 되던 1994년 1월. 어느 주간지에 갑오농민전쟁을 연재하느라 역사의 현장을 두루 밟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농민군이 봉기하던 마을에서 고부관아로 가는 들판, 그리고 농민군이 미륵의 비결을 얻었다는 고창 선운사, 농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첫 승리를 했던 황토현, 녹두장군이 밀고로 잡히기 전날 묵었던 장수 백양사 산내암자 등 현장을 돌아보면서 새 세상을 이루려던 민중의 염원을 새기다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왜 농민군은 한겨울, 그것도 정월 보름을 앞두고 봉기했을까 하는 의문도 현장을 돌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보름을 넘기면 이제 밭농사가 본격 제철을 맞고 그러다 보면 금방 논농사 철이 됩니다. 아무리 백정같은 관리나 지주들이 생산물을 수탈한다 하여도 농사꾼은 역시 흙냄새에 약한 무지렁이입니다. 알곡 한 알 제 것으로 챙기지 못해도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곡식과 채소를 생산하는데 게으를 수 없는 게 그네들의 심성입니다. 그러니 농사철이 오기 전 못된 관리를 징치하고자 작정한 일을 잡도리하고 단단히 매조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언땅이 풀리기 전 드디어 봉기를 감행한 겁니다.

음력 정월보름을 앞뒤로 하여 시간 내어 호남땅을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그 밤에 커다랗게 떠서 농민군의 발길을 밝혀주던 보름달의 안내도 받아 보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지방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첫째로, 유독 호남에서만 볼 수 있는 붉은 황토밭을 봅니다. 호남의 황토는 여느 지방의 흙하고는 달리 정말 붉습니다. 이제 봄철을 맞아 밭농사를 하려고 막 갈아 엎은 황토밭은 마치 물감으로 적신 땅으로 착각하리만치 벌겋습니다. 거기다 고랑을 잘 다듬어 놓은 붉은 황토밭의 옆 보리밭에서는 환상적으로 대비되는 푸른 보리싹이 생명의 싱그러움을 한껏 노래합니다. 붉은 색과 풀색이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또 있을까. 이 아름다운 정경을 짓밟고 백성의 고혈을 빠는 자들이 있다니 그네들을 징치하지 않고서야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왜 이 고장에서 봉기가 일어났는가를 넉넉히 짐작하게 됩니다. 민중미술의 일세대인 임옥상 화백은 일찍이 이 고장의 이때쯤을 그림으로 그렸으니 이분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민군은 왜 정월 보름을 앞두고 봉기했을까

붉은 황토밭과 푸른 보리싹, 생명은 싱그럽다

두 번째는 동백입니다. 동백꽃을 '열사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꽃들이 화려하게 피었다가는 꽃잎을 떨구며 시들어 갑니다만, 동백꽃은 그 붉은 모습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통꽃'으로 집니다. 목이 부러지듯 툭 하고 떨어집니다. 지조를 버리지 않고 정의의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기어이 가고 마는 이, 하여 그 길에서 목숨도 버려야 한다면 서슴없이 실천하는 이를 열사라 합니다. 그러니 동백을 열사의 꽃이라 하고 또 열사를 동백처럼 가신 분이라 하는 게지요.

농민군의 발자취를 더듬던 그때, 김제의 작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사방이 까무룩하게 고요한 밤. 세속에 찌든 나그네는 상념으로 잠 못 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툭, 툭'하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절마당의 동백나무에서 동백꽃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통꽃으로 지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그 깊은 밤에 스스로 제 목을 자르더라고요. 두툼하며 짙은 풀색의 잎에 꽃은 열정적으로 붉더니 그 생의 마무리를 그처럼 지조 있게 가름하니 많은 시인이 이 꽃을 노래하나 봅니다.

우리나라 민중미술의 빼놓을 수 없는 이 가운데 한분이 강요배 화백입니다. 제주가 고향인 강 화백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잔인한 학살로 기록되는 1948년 4월의 '4 · 3제주학살'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 선 화가입니다. 자연 강 화백은 그 사건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눈에 선연하게 기억되는 작품 가운데 바로 '통꽃으로 지다'가 있습니다. 제주도 오름의 골에서 서북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하는 그림입니다. 소재가 그렇다고 그림이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동백을 정면에 크게 그리고 그 먼 뒤쪽 오름의 골에서 벌어지는 현장은 마치 사진기의 흐려진 초점마냥 그렸습니다. 역사를 알고 동백을 사랑하는 이들이시여, 이 그림을 보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시길.

세 번째입니다. 그날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날 다른 절에서인가, 아무튼 바닷가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잠이 오지 않아 슬그머니 절을 나와 가까운 소나무숲에 들었습니다. 숲을 가르는 밤바람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겨울의 하늘은 푸른빛이 서려있었습니다. 그 밤하늘엔 커다란 정월보름달이 휘영청 걸려 있는데, 아 이건 또 뭡니까? 그 보름달을 배경으로 기러기떼가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뭡니까. 지난 가을 저 먼 시베리아에서 마녁(남)으로 내려와 겨울을 지내고 다시 제 온 자리로 돌아가는 철새가 서로를 달래느라 '끼룩 끼룩' 거리며 시린 밤하늘에 멋진 무늬를 놓는 모습. 한 무리의 기러기떼가 가고 나면 그 뒤를 이어 또 한 무리의 기러기가 밤하늘을 시옷자로 지나갑니다. 올려다보는 보름달에도 그들이 지나갑니다. 이 겨울밤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며 가는 저들의 정체는 뭡니까. 하늘의 길을 아는 짐승이니, 하늘이 가르쳐 준 삶의 길도 못 찾는 사람보다 훨씬 영민합니다. 때 되면 마녁으로 날아 와 또 때가 되면 노녁(북)으로 가는 저들에게 휴전선으로 차단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겨레의 현실은 또 뭡니까.

이 철에 호남에 가는데 별나게 길라잡이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제 글도 그저 참고일 따름입니다. 그곳에 서린 우리 역사를 더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는 길에 이왕이면 작년 탄생 백주년이라 하여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구보 박태원의 대하소설 <갑오농민전쟁>(1988. 도서출판 공동체)을 읽고 가면 더 좋고 금상첨화로 앞서 밝힌 두 화백의 그림도 눈에 담고 가시길 권합니다.



서동석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총지종 복재재단 사무국장, 조계종 10 · 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 상임위원 역임. 현 통일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성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 23일 (15일)**
- ◆코 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불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 ◆인 원 : **30명 선착순.** ◆접 수 마 감 : **4월 2일 (금)**
- ◆참 가 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 ◆입 금 계 좌 : 국민은행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 ◆사전설명회 : **4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개별공지)
- ◆문 의 : 임연태 (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